Formosa, 플래스틱 종이 서적 제작

王永慶 회장 자서전 한국출판에 Nanya Plastics 개발 합성지 이용

물에 젖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플래스틱 종이로 만든 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FKI미디어는 3대 화교 거상으로 꼽히는 왕융칭(王永慶) 타이완 Formosa그룹 회장의 성공신화와 경영철학을 담은 [경영의 신 왕융칭]을 석유화학 합성지로 제작 발간했다.

백진주로 불리는 합성지는 포모사 그룹의 계열사인 Nanya Plastics이 개발한 인조종이로 일종의 석유화학제품이다.

Nanya Plastics은 왕융칭 회장이 산림의 파괴를 막고 지구온난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1991년부터 7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했다.

천연종이가 갖고 있지 못하는 방수성과 찢어지지도 않고 벌레먹지 않는 강한 내구성이 장점이다. 사용 후에는 일반 종이가 아닌 플래스틱으로 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다. 천연종이에 비해 무게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낡은 책으로부터 쉽게 발견되는 분진도 플래스틱 종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합성지 원가를 포함한 제작비용이 기존 종이를 이용할 때보다 아직 2.5배 비싼 것이 흠이다.

타이완에서 일부 서적이 합성지를 이용해 출간된 적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이다.

왕융칭 회장은 타이완 최대의 기업집단인 포모사 그룹을 맨손으로 일으킨 기업인으로 끼니조차 잇기 힘든 극빈가정에서 태어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을 일군 자수성가형 거상(巨商)으로 평가받고 있다.

16세에 쌀집을 창업해 경영의 길에 들어선 것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비슷하다. 또 목욕 수건 한 장을 30년간 썼을 정도로 근검한 경영자로 정평이 나있으며 경영스타일은 고 이병철 삼성회장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86세의 고령에도 아직도 그룹 경영을 의욕적으로 관장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포모사 그룹은 화학을 주력으로 전기전자 부문 등에 걸쳐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자산이 72조원이 넘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1>